

<하기 글은 2014년 2월 25일 삼성전자 소통블로그에 게재된 글입니다>

화성시 지역주민과 진심을 담은 소통을 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의 2월 정기회의가 지난 20일 진행되었습니다.

소통협의회 1기의 지난 한 해 활동을 되돌아 보고, 앞으로 지역주민과 소통지수를 더욱 높이기 위해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주고받은 열정적인 2월 정기회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1기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나누는 시간

오는 4월이면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됩니다. 원활한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노력해 온 시간인데요, 특히 지역과 기업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협업체를 이룬 것은 쉽게 접할 수 없는 사례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날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 2월 정기회의는 이승백 의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임직원들과 소통협의회 1기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가 출범한 이후, 삼성전자는 환경안전 종합대책을 수행하고자 꾸준히 노력해왔는데, 무엇보다 매월 정기회의를 통해 안전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결과를 전달해 오고 있었기에 지속적인 변화에 모두가 만족스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 진행한 지역사회 대학생 방학캠프를 포함해 지역주민과 소통한 다양한 활동들을 점검하며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정기회의의 안건을 논의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삼성전자 환경안전팀 박종문 부장이 냉각탑 수증기 저감장치 연구 현황 및 수증기 성분 확인, 사업장 주변 환경영향조사 등 안전대책 개선 내용 등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어 위험물 취급 작업에 대한 진행 현황을 공유하였으며, 화성캠퍼스 주변인 반월동·동탄1동·동탄3동에 설치된 전광판에 대한 소통협의회 위원 간의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삼성전자의 화성시 지역사회 상호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소통 공동체'

그렇다면, 2014년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는 어떤 방향으로 활동하게 될까요? 지속적인 환경안전 종합대책을 수립에 전문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화성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소통활동'에 주력한다는 계획이 논의되었는데요. 삼성 나눔 워킹 페스티벌부터 나노시티 하모니 음악회까지 다채로운 활동을 준비 하고 있다고 하니, 올해 소통협의회 활동 역시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2014년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는 어떤 방향으로 활동하게 될까요? 지속적인 환경안전 종합대책을 수립에 전문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화성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소통활동'에 주력한다는 계획이 논의되었는데요. 삼성 나눔 워킹 페스티벌부터 나노시티 하모니 음악회까지 다채로운 활동을 준비 하고 있다고 하니, 올해 소통협의회 활동 역시 기대가 됩니다!